

따오기와 자연 학습관 도키미테

따오기는 옛날 일본 각지를 비롯해 중국, 한국, 러시아 등의 인근 국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사도 섬뿐만 아니라 나가오카시 등 4 곳에서 분산하여 사육되고 있습니다.

이 학습관은 사도 섬의 야생 복귀 지원과 따오기에 관한 자료 전시 및 연수를 위한 장을 제공하여 따오기의 보호와 번식 및 따오기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따오기와 자연 학습관에서는 따오기의 성장에 따른 생김새의 변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태어났을 때는 회색 깃털이 자라 있고, 2 개월 후에는 날개의 뒷면이 연노란색이 되며, 5 개월 후에는 옅은 주황색으로 변화합니다. 그리고 2 년째를 맞이할 때쯤에는 주황색이 도는 분홍빛의 도키이로(따오기색)라고 불리는 독특한 색이 보이게 됩니다.

학습관 내 전시에서는 따오기의 표본, 영상과 함께 성장 과정을 소개합니다. 방문객은 라이브 영상으로 새끼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관람 시설(도키미테)에서는 번식기에 따오기 새끼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.

새끼에서 어린 새로 성장하면 사도 섬으로 이송됩니다. 사도 섬에서는 따오기를 방생할 때 태그를 달아서 감시하고, 행동 등을 연구합니다. 보호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 따오기와 따오기의 생애 주기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.

사도 섬의 습원과 숲, 논 등에는 따오기의 이상적인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따오기는 일반적으로 물가에 있는 밤나무나 소나무에 서식하며, 논이나 늪의 미꾸라지, 곤충 등이 주식입니다. 따오기는 매년 2 월경부터 구애 행동을 하고 등지를 틀며, 3 월경부터 1 일 간격으로 1 개씩 3~4 개의 알을 낳습니다.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28 일 만에 새끼가 태어납니다. 학습관의 관람 시설에서는 성장한 수컷 따오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호타루(노란색), 히카리(붉은색), 게야키(연두색)라는 이름의 따오기가 3 마리 있으며, 관찰하기 쉽도록 각각 다른 색의 발목 고리를 차고 있습니다. 2024 년 1 월부터는 유(흰색)와 사쿠라(검은색)라는 이름의 암수 한 쌍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곳에서는 연분홍빛의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활기차게 비상하는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

오후 1 시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따오기가 야생에서와 같이 먹이를 찾는 모습을 방문객들이 볼 수 있습니다. 직원이 새장 안의 작은 연못에 미꾸라지를 주면 따오기는 긴 부리로 잡아먹습니다. 또한 오전 9 시에는 말고기 사료와 당근과 삶은 달걀 등을 섞은 사료를, 오후 3 시에는 펠릿 사료를 줍니다. 이러한 조합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매일 줄 수 있습니다.

1981 년에 사도 섬에 있던 야생 따오기 5 마리를 모두 포획하여 사도 따오기 보호 센터에서 사육했습니다. 이후 개체 수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4 군데 지역에서 분산 사육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만약 모든 따오기를 한 지역에서 사육하면 한 번의 재해나 조류 독감과 같은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전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.

나га오카, 사도 외에도 도쿄도, 이시카와현, 시마네현에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. 1999년에는 중국에서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하여 보호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습니다. 이 따오기들은 번식에 성공하여 2023년 말 시점에 사도 섬에 서식하는 따오기는 532마리로 추정되며, 방생한 개체는 152마리, 야생에서 탄생한 개체는 380마리입니다. 사도 섬에서 나га오카시까지 날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따오기도 있습니다. 섬에서 본토까지는 페리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며, 따오기도 약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보호 활동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, 나га오카시와 사도 섬이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따오기의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